

강의 한 시간은 너무 길지만 대학 4년은 너무 짧다.
-- 어느 한국 대학교 벽에 쓰인 낙서

수업 마치기 1

"다음 시간에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강의실은 순식간 어수선해집니다. 책을 덮어버리는 소리, 노트와 종이 쪽지를 추스르는 소리, 걸상 빼꺼거리는 소리, 가방을 책상 위로 올려놓는 소리... 학생들은 마치 교수님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기를 수업 시간 내내 기다린 듯합니다. 모두들 어딜 급히 가야하는 듯하기도 합니다.

이때 어떤 교수님은 목청을 한층 높여서 하시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운 원리가 적용되는" 다음 강의의 예고를 하시면서 그 날 강의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니다. 무척 중요한 내용이지만 학생들의 관심은 이미 강의를 떠났습니다. 강의실은 점 점 더 소란해집니다. 그러니 교수님은 따라서 더 큰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다음 수업을 위해 5장을 읽어와요. 특히 57페이지부터...." 과연 교수님의 말씀이 학생들에게 들리거나 했을까요?

수업시간이 다 끝나지 않은데 학생들이 책가방 싸기 바쁜 모습을 보면 입안이 씹쓰름해집니다. '나는 강의가 끝나는 것이 아쉬운데 학생들은 그렇게도 좋을까... 나는 수업시간 마지막 일 초까지 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학생들은 단 일 초라도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 있지 않나...' 한마디로 김이 썩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학생들을 점잖게 야단치십니다. "아직 수업이 다 끝나지 않았으니 좀 조용해요!"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학생들은 교수님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이전 학생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 강의실이 조용해지기는커녕 교수님만 썰렁해집니다.

물론 이럴 경우 좀 강하게 야단쳐 학생들을 억지로 붙잡아 놓을 수는 있겠습니다. "왜들 이리 조급한가!" "누구야! 강의가 끝나지 않은데 가방 싸고 출싹대는 학생이?" 이 정도 되면 학생들은 금방 조용해지겠지요. 하지만 교수님과 학생이 한 방에 함께 있다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한마음은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방"입니다. 수업이 끝나기 전에 끝났음을 알리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결론을 말하자면..."

"오늘 수업 이해되었어요?"

"마지막 질문 없나요?"

이런 말은 강의가 끝났음을 통보합니다. 또한 비록 말로 하지 않더라도 강의의 끝을 알리는 제스처(비구어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벽에 걸린 시계를 힐끔 쳐다보기

스스로 강의 노트를 추스르기

결론을 내고 난 후 말없이 뜸들이기

손에 쥐고있던 분필을 내려놓고 손 털기

특히 손을 털기까지는 않았어도 분필을 내려놓는 순간 교수님께서도 전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학생들은 "강의 끝"이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강의 시각이나 중간에는 아무 문제되지 않는 행동이어도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는 하지 마셔야 합니다.

다음 호에는 그림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소리 코너>

작년에 어느 대학교를 방문했을 적에 "강의 한 시간은 너무 길지만 대학 4년은 너무 짧다"라는 글은 보게 되었습니다. 무척 재미있고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조금할 수밖에 없는 심정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 조벽, 2002

이전 발간물은 웹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http://www.me.mtu.edu/~peckcho/korean.htm>

이 무료 간행물을 직접 받아 보시기 원하시면 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자동 가입됩니다.

가입을 취소하실 경우에는 unsubscribe teachwell-1 을 적어 peckcho@mtu.edu로 보내시면 됩니다.

다른 사항은 조 벽 교수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peckcho@mtu.edu 전화: 미국(906) 487-2891 팩스: (906) 487-2822
